

# 한중FTA 체결관련 중국내 반응

(14. 11. )

상해사무소

## 1 동향

- (중국 상무부) 중국 상무부는 기 체결된 FTA협상 중 포괄범위 및 국가별 교역액이 가장 크고 개방도가 높으며, 양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었다고 평가
- (중국 주식시장) FTA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주식이 상승
  - 단기적으로는 해운, 항만, 방직, 농산품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되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
    - 해운, 항만의 경우 물동량이 늘어나는 효과로 중국의 북쪽지역(대련, 천진, 연운항 등) 항구 및 관련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
    - 방직품과 농수산물의 대 한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
- (중국 시장 전문가) FTA가 양국간 교역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중국의 대외개방에 있어 의미를 가지며, 동아시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
  - 일부에서는 의료, 전자전기, 철강, 서비스 산업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,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\*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,
    - \* '13년 중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628억 달러에 이름
  - 중국에게는 한국의 자본을 이용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, 한국의 기술 및 관리 경험 전수 촉진 등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음
  - 특히, FTA로 한중일 FTA 협상 진전, 한국의 역외위안화 센터로의 도약 등에 기여할 것이며, 한국기업 중 전자, 미디어, 의류, 음식료 부문 등의 수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고, 양국간 금융, 통신 부문 교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

- (중국내 한국기업들) 세부적인 협상이 완료가 안된 상태로 좀 더 지켜 봐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이며, 중국진출 국내 기업들의 경우 현지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어 무역장벽 해소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. 또한, 중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에 주목
- (타이완) 타이완 매체들은 한중간의 FTA가 타이완 경제에 줄 충격을 우려
  - 타이완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철강, 자동차, 패널, 석유화학, 방직, 유리, 공작기계 등 7개 분야로 분석
  - 타이완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FTA발효시 타이완 GDP가 0.5% 하락하고, 수출이 1.34%감소할 것으로 분석. 이는 중국이 타이완 수출의 46%를 차지하고, 수출품 중 한국과 겹치는 분야가 77%에 이르는데 따른 결과임
  - 타이완 내부적으로는 2년전 시작된 중국과의 경제협력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

[자료: 証券日報, China Daily, 중국상무부 등]